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 훈련을 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투비행사들의 검열 비행훈련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여러 기종의 전투기들을 불의에 도로비행장에 호출하시고 현지에서 전투비행사들의 비행술을 관정검열하시였다.

인민무력부장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육군대장 리명수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제1부총참모장 겸 작전총국장인 육군중장 림팡일동지, 조선인민군 총정치국 조직부국장인 육군중장 조남진동지가 동행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사령관인 항공군대장 최영호동지, 대련합부대 정치위원인 항공군상장 손철주동지가 맞이하였다.

훈련에는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 제447군부대, 제458군부대가 참가하였다.

지성을 구르는 천둥소리와 함께 시뮬레이션 불꽃을 뿜으며 푸른 하늘을 누비고 날아온 영웅한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지켜보시는 앞에서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은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비행사들이 높은 사상적각오를 안고 비행훈련을 실천의 분위기속에서 싸움맛이 나게 함으로써 그 어떤 불리한 정황속에서도 맡겨진 공중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는 유능한 전투비행사, 만능비행사로 튼튼히 준비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훈련이 성과적으로 진행된데 대하여 거듭 만족해하시면서 전투비행사들이 훈련목표를 높이 세우고 훈련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를 맞으며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해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의 전체 전투비행사들은 항공군의 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언제나 마음쓰시며 정력적인 지도를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당의 의도대로 강도높은 비행

여러가지 복잡한 공중전투비행동작들을 땀시있게 수행하며 우리 당이 안겨준 담력과 배짱으로 평시에 련마해온 자기들의 조종술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이러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조작에 대한 관정이 진행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이 추격기들을 손바닥날리듯 자유자재로 조종하는데 정말 불만 하다고, 생소하고 불리한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조작도 정말 잘한다고 하시면서 검열비행훈련을 볼시에 조직하였는데 훈련이 아주 잘되였다고,

믿음직한 우리 당의 하늘초병들은 언제나 명명만 내리면 출격할수 있게 준비되어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비행사들의 훈련을 볼 때마다 늘 강조하는것이지만 조국의 평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훈련을 생활화해나감으로써 언제나 백전백승의 비행운만을 아로새기는 하늘의 결사대, 불패의 김정은비행대의 영예로운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갈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박물관을 새롭게 꾸리는 사업에 적극 기여한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주체의 태양으로 영원히 높이 모셔갈 총정의 한마음안고 조선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실장 리종혁은 조선혁명박물관을 태양조선의 대국보물로 꾸리는 사업에 적극 헌신하였으며 지원사업에도 앞장섰다. 양각대외건설자양성사업소 기술원 최현봉은 백두산 청년강국에서 살며 투쟁하는 청년전위답게 우리 당과 혁명의 만년재보를 끝없이 빛내이는 사업에 깨끗한 량심을 바치였다. 조선혁명박물관을 주체사상교양의 전당, 혁명전통교양의 거점으로 더 잘 꾸리는데 이바지할 일념밑에 대외경제성 산하단위 부원 최철진은 많은 자재들을 보내주었으며 부원 김은남도 성의있는 지원으로 공사속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대동강구역의봉사사업소 로동자 정소희는 수십년

간 만수대언덕에 올라 백두산천출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빛내이는 사업에 총정을 바친 부모들의 뒤를 이어 주체의 혁명전통을 굳건히 옹호고수하기 위해 온갖 지성을 다하고있다. 지난 기간 절세위인들을 높이 우러러모시기 위한 사업에서 모범을 보인 평양오리고기전문식당 로동자 황금별은 가정에서 미려한 물자들을 만수대혁명사적지에 보내주는 소행을 발휘하였다. 인민아외빙상장 로동자 김광심도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조선혁명박물관구리에 펼쳐나선 돌격대원들이 혁명적열정과 전투적기백에 넘쳐 맡겨진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하는데 이바지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크나큰 감격속에 받아안은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헌신의 열에서 참된 삶을 빛내어갈 굳은 결의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불멸의 꽃축전장에 뜨겁게 굽이치는 위인흠모의 열기

【평양 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개막된 제20차 김정일화축전이 편일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신군조선의 영원한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흠모심에 떠받들려 주제 86(1997)년 2월에 처음으로 열린 김정일화축전은 조선로동당 제7차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에 스무번째의 빛나는 년분을 아로새기고있다. 지난 기간 19차례에 걸쳐 해마다 진행된 김정일화축전에 33만여명의 불멸의 꽃들이 전시되었으며 참가자들의 수는 750여만명에 달하였다. 세계 여러 나라들에서 100여개의 전시회가 진행되었다. 축전이 개막된 지난 15일부터 현재까지 수십만명의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 해외동포들과 외국 손님들이 축전장을 참관하였으며 17일 하루동안에만도 참관자수는 12만명에 달하였다. 이것은 회세의 신군명장이시며 자주와 정의의 수호자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를 민족의 어머니, 인류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따르는 온 겨레와 세계 진보적인류의 순결무구한 도덕의리심의 숭고한 발현으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우리 당과 인민의 영원한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장군님의 혁명생애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깊이 빛내어나가야 합니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불멸의 꽃축전장을 찾은 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소년학생들은 수만상의 김정일화들로 아름다운 꽃바다를 펼친 전시대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보았다. 조선로동당의 붉은 기발을 혁명의 제일군기로 높이 추켜들고 당 제7차대회에로 향한 오늘의 총공격전을 총대로 굳건히 담보해나갈 인민군장병들의 결사의 의지가 어찌있는 인민무력부, 조선인민군 김성덕소속부

대전시대에서 참가자들은 협조한 철명과 오성산의 칼벼랑길, 총평사나운 초도의 배길을 헤쳐가신 우리 장군님의 전신길이 어려와 반길음을 쉬이 옮기지 못하였다. 이번 축전에 450상의 불멸의 꽃들을 전시한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전시대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새로운 영웅청년선화창조로 당 제7차대회에 드리는 총정의 선물을 마련해나갈 우리 청년들의 사상정신세계를 잘 보여주고있다. 자강혁명주의를 높이 들고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총력투쟁에서 눈부신 과학기술성과, 전례없는 로력적성과를 이룩해나갈 우리 인민의 불타는 결의는 김일성총화대학, 국가과학원, 금속공업성, 국토환경보호성, 경흥지도국, 삼천세멘트련합기업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전시대들에도 차임했다.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들과 여러 나라의 저명한 인사들, 친선단체들의 지성이 어린 김정일화를 바라

보며 참가자들은 우리 장군님이시야말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계시는 세계정치천로 불세출의 위인이심을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다. 축전장을 참관한 해외동포들은 민족대부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한평생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가 어려와 가슴뜨거워짐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물론 비록 이역땅에 있어도 애국총정의 내를 뜻없이 이어나갈 의지를 표명하였다. 외국 손님들도 불멸의 꽃들로 황홀경을 이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김정일동지에 대한 조선인민의 경모심이 얼마나 감명찬가를 잘 알수 있었다고 하면서 절세위인의 존함을 모신 김정일화는 태양의 꽃으로 영원토록 만발할것이라고 격동된 심정을 피력하였다. 민족의 어머니, 인류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들의 열화같은 경모심에 떠받들려 위인칭송의 꽃바다는 백두산대국의 불명절과 더불어 영원할것이다.